

## 믿음, 실용적 수용, 그리고 인식적 수용\*

이 병 덕

**【국문요약】** 이주한 박사는 최근 세 논문들에서 다음 논제들을 옹호한다. 첫째, 일상적 표현 ‘믿음’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심적 태도들을 가리키는 다의어이다. 즉 ‘믿음’은 불수의적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 수의적 심적 행위로서의 실용적 수용, 또는 수의적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을 가리킨다. 둘째, 실용적 수용은 증거가 없음에도 실용적 이유에서 특정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인 반면 인식적 수용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면서 인식적 이유에서 증거에 따라 참으로 간주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이다. 셋째, 의무론적인 인식규범이 적용되는 태도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수의적인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이다. 이 세 논제들은 만약 옳다면, 현대 인식론에 큰 함축을 가지는 독창적인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주한 박사가 자신의 논제들을 정당화하는 데 성공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믿음, 실용적 수용, 인식적 수용, 이주한

투고일: 2018.3.11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8.6.11 게재확정일: 2018.5.17

\*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1. 들어가는 말

이주한 박사는 최근 세 편의 논문 “믿음의 불수의성과 필연성” (2015), “‘믿음’ 과 인식적 수용” (2017a), 그리고 “인식적 수용과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2017b)에서 다음의 세 가지 논제들을 옹호한다.

첫째, 일상적 표현 ‘믿음’ 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심적 태도들을 가리킨다. 즉 ‘믿음’ 은 불수의적(不隨意的, involuntary)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belief as a mental disposition), 수의적 심적 행위로서의 실용적 수용(pragmatic acceptance), 또는 수의적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epistemic acceptance)을 가리킨다.<sup>1)</sup> 따라서 ‘믿음’ 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는 다의어이다.

둘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과 달리,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은 둘 다 수의성(voluntariness)을 가지는 심적 태도이다. 그렇지만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실용적 수용은 증거가 없음에도 실용적 목적 하에서 특정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인 반면, 인식적 수용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실용적 이유를 거스르면서 인식적 목적 하에서 증거에 따라 참으로 간주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이다.

셋째, 의무론적인 인식규범이 적용되는 심적 태도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수의적인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이다.

위 세 논제들은 만약 옳다면, 현대의 인식론적 논의에서 매우 중

1) 이주한 박사는 ‘voluntariness’ 를 ‘수의성’ 으로 번역한다. 통상적으로 이 표현은 ‘자발성’ 또는 ‘의지성’ 으로 번역되지만, 이 논문에서는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주한 박사의 번역어를 따른다.

요한 함축을 가지는 독창적인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주한 박사가 자신의 논제들을 정당화하는데 성공적이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 2. 믿음의 불수의성

이주한 박사는 그의 2015년 논문 “믿음의 불수의성과 필연성”에서 믿음이 수의적 제어 하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은 필연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믿음이 참을 목표로 한다는 것, 즉 믿음이 증거 상대적으로 참을 산출한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속성(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믿음은 본질적으로 증거 없이는 산출되지 않는다는, 혹은 본질적으로 증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이 함축된다. ... 믿음은 필연적으로 내용을 가지는 심적 태도인데, 이 믿음 내용은 그것이 토대하고 있는 증거에서 기원한다. 그런데 크립키의 논의에 따르면 기원적 속성은 본질적 속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크립키의 논의를 받아들일 때, 믿음이 증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은 믿음이 가지는 본질적 속성(의 하나)이다. ... 그런데 이것은, 수의성 논쟁과 관련하여, 믿음이 필연적으로 증거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 믿음이 오직 의지만에 의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필연적임을 함축한다. 혹은, 약간 다르게 진술하면, 필연적으로 믿음은 인식적 이유 없이는 실천적 이유만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한 2015, pp. 150-151)

위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실세계에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증거로부터 산출된다.
- (2) 믿음이 증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은 믿음의 기원적 속성이

다.

- (3) 따라서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증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 속성이다.

우선,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일상적인 지각믿음들(perceptual beliefs)과 기억믿음들(memory beliefs)은 추론을 통해 형성하는 믿음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들은 증거를 토대로 추론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들이 증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주한 박사에 따르면, 임의의 믿음  $p$ 는 어떤 증거  $E$ 로부터 **인과적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증거  $E$ 와 믿음  $p$  사이의 관계가 순전히 인과적이라면, 전자는 후자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주한 박사가 믿음  $p$ 의 원인  $E$ 를 어떤 의미에서 ‘증거’라고 말하는지 분명치 않다. 믿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들판 위에 하얗게 보이는 작은 점을 봄으로써 ‘들판에 양이 있다’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본 것은 어떤 바위에서 반사된 하얀색 빛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믿음을 산출한 원인인 하얀색 시각적 자극  $C$ 는 ‘들판에 양이 있다’는 믿음  $p$ 의 증거인가?  $C$ 가  $p$ 의 증거이기 위해서는  $p$ 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C$ 는 단지 인과적 자극일 뿐이고, 따라서 적절한 증거인지 아닌지에 대해 인식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증거는 주어진 믿음이 참일 개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지에 따라 인식적으로 적절한 증거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한 박사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외부세계의 비개념적 원인에 의해 산출될 가능성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왜 오직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이 믿음의 원인일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많은 믿음들은 추론과정의

매개 없이, 인과적 자극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런 비추론적 믿음들의 원인이 그 어떤 예외도 없이 항상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제 믿음이 증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은 믿음의 기원적 속성이 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이주한 박사에 따르면 믿음이 증거 상대적으로 참인 내용을 산출한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 속성이고, 이때 증거와 관련된 것은 개별자로서의 한 특정한 믿음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명제적 내용이다. 진리치의 담지자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개별자가 아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는 믿음을 공유한다. 반면 앞서 언급된 크립키의 논의는 개별자들에 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각 개별자의 기원은 그 개별자에 본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두 개별자 a와 b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다는 사실은 a와 b가 서로 다른 개별자들임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증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이 믿음의 기원적 속성일 수 있는가? 이주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크립키는 기원이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개별자에 대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크립키의 논증이 개별자와 보편자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주한 2015, p. 150. 주 13)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개별자와 보편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개별자들은 예외 없이 고유한 기원을 가진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처음 출현하게 된 특정한 시공간이 있다. 반면 보편자들은 시공간 속에 있는 개별자들이 아니기 때문

에 통상적으로 기원을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삼각형의 기원은 무엇인가? 빨강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어렵다. 둘째, 크립키에 따르면 개별자  $a$ 의 기원을 고정함으로써  $a$ 를 고정할 수 있고, 반대로  $a$ 를 고정함으로써  $a$ 의 기원을 고정할 수 있다. 또한  $a$ 의 기원과 다른 기원을 가진 것은  $a$ 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개별자  $a$ 의 기원은  $a$ 의 본질적 속성이다. 반면 동일한 내용의 믿음을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A$ 라는 사람은 명제  $p$ 에 대한 믿음을 착각 또는 오해를 통해 형성할 수 있고,  $B$ 라는 사람은  $p$ 에 대한 믿음을 특정한 감각경험을 통해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C$ 라는 사람은  $p$ 에 대한 믿음을 추론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믿음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 각각 달라도  $A$ ,  $B$ ,  $C$  모두가  $p$ 를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세 사람 모두가  $p$ 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A$ ,  $B$ ,  $C$ 의 믿음 각각에 대해 기원(또는 원인)을 묻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공유하게 된 믿음 내용  $p$ 에 대해 그 기원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p$ 라는 믿음 내용이 고정돼도, 이로써 어떤 특정한 증거가 고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어떤 증거가 고정돼도 이로써 특정한 믿음 내용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믿음 내용  $p$ 와 어떤 사람이 어떤 증거에 의해  $p$ 를 믿게 되었는지는 서로 독립적이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들의 수많은 원인들이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모두 증거들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다. 따라서 믿음이 증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제 ‘믿음은 수의적 제어 하에 놓일 수 없다’는 이주한 박사의 주장을 살펴보자.  $S$ 가 지구는 둥글다고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S$ 는 이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가질 것이

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그렇다’ 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대양을 계속 항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배가 어느 지점에서 지구 끝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믿음에는 이와 같은 심적 성향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단지 심적 성향에 불과한가이다.

모저(Moser 1989)에 따르면 S의 p에 대한 믿음은 두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조건은 S가 p에 대해 고려할 때 p에 대해 승인하게끔 해주는 성향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S가 p에 대해 실제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조건을 ‘승인조건’ (the assent condition)이라고 부른다.<sup>2)</sup> 모저에 따르면 승인조건은 믿음의 성향(dispositions to believe)과 실제 믿음(actual beliefs)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믿음의 성향은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을 공유하지만, 믿음의 두 번째 조건, 즉 승인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믿음과 구분된다. 승인조건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음 질문과 관련된다. S는 어떻게 믿음 p를 실제로 형성하게 되는가? 모저에 따르면, S는 p를 승인함으로써 p를 믿게 된다. 따라서 p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과 단지 p에 대한 믿음의 성향을 가지는 것은 전자가 승인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예컨대 S가 ‘스테이크 고기는 식기 세척기로 요리할 수 없다’ 는 명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S가 이 명제에 대한 믿음을 실제

---

2) 여기서 언어적 승인(linguistic assent)과 심적 승인(mental assent)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언어적 승인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언어적 행위이다. 어떤 사람이 p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승인하면 p에 대해 언어적 승인을 하는 것이다. 반면 심적 승인은 그러한 종류의 언어적 행위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떠오른 생각 내용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심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로 형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S가 이 명제를 승인할 지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면 그는 곧바로 이 명제를 승인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S가 이 명제에 대한 믿음의 성향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3)</sup>

믿음에는 위와 같은 심적 승인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지 심적 성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인식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의 주체는 자신이 승인한 명제에 대해 인식적 책임이 있다. 예컨대 S가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라고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지만 왜 그렇게 믿는지 물으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S의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평가를 토대로 그 믿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컨대 믿음은 인식적 평가의 대상이고, 따라서 그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정할 것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주한 박사에 따르면, 믿음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이며, 또한 믿음은 증거에 의해 인과적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믿음을 이렇게 인과적으로 이해하면, 믿음 자체는 인식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믿음을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의 예를 다시 고려해보자. S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옹호해주는 적절한 근거는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S에게 그 믿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주한 박사의 주장대로 믿음이 단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에 불과

3) S가 믿음 p를 실제로 형성하기 위해서 p에 대한 심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S가 p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물론 아니다. 믿음은 시간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현재 활성화된 상태에 있으면 발생적 믿음(occurrent belief)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발생적 또는 성향적 믿음(non-occurrent or dispositional belief)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의 승인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2002년 논문 “믿음관념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을 참조하기 바람.



한 것이라면, S는 자신의 믿음이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론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바로서의 ‘믿음’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이 아닌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말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러나 이주한 박사의 주장대로 믿음이 전적으로 불수의적이라면, 이와 같이 인식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요컨대, 인식론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바로서의 ‘믿음’은 단지 심적 성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에게 인식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경우에 수정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 3. 믿음과 수용

이주한 박사는 그의 2017년 논문 “ ‘믿음’ 과 인식적 수용”에서 불수의적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과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을 구분한다.

믿음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인 반면 수용은 수의적인 심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심적 태도이다. (이주한 2017a, p. 206)

따라서 이주한 박사에 의하면 믿음과 수용은 범주적으로 서로 다르다. 전자는 직접적 수의적 제어 하에 있는 **않는** 심적 **성향**인데 반하여 후자는 직접적 수의적 제어 하에 있는 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한 박사는 심적 행위로서의 수용을 실용적 수용 (pragmatic acceptance)과 인식적 수용(epistemic acceptance)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위해 어떤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심적 행위가 실용적 수용이다. (이주한 2017a, p. 219)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그것이 그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주한 2017a, p. 213)

따라서 이주한 박사가 믿음과 수용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는 직접적 수의적 제어 하에 있지 않는 심적 성향인데 반해 후자는 직접적 수의적 제어 하에 있는 심적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한 박사에게 따르면 의무론적인 인식규범이 적용되는 태도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수의적인 심적 행위인 인식적 수용이다. 그러나 믿음과 수용을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들에 대해 인식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인식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수의적으로 형성되는 믿음들도 예외가 아니다. S가 목초지에 있는 어떤 털복숭이 동물을 보고 ‘목초지에 양 한 마리가 있다’는 믿음을 불수의적으로 형성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믿음에 대해서도 인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S가 본 것은 양이 아니라, 양과 생김새가 매우 흡사한 털복숭이 개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 S는 애써 이러한 인식적 비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믿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본 털복숭이 동물에 좀 더 다가가서 그것이 양이 아니라 개임을 확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수정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성적인 인식주체로서 믿음을

획득하고 상실하게 되는 절차 또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참일 개연성이 높은 믿음을 형성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인식적 책임을 지닌 이성적 존재인 이유는, 불수의적으로 형성된 믿음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통해 그것을 의심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그렇다면 ‘믿음’ 과 구분되는 ‘수용’ 이라는 심적 태도를 굳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주한 박사가 믿음과 수용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코언(Jonathan Cohen)과 올스톤(William Alston)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의성 논쟁은 ... 표현 ‘믿음’ 이 다의어로서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그것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심적 태도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우선, 코언(J. Cohen), 올스톤, 브라트만(M. Bratman) 등이 구분한 두 심적 태도, 즉 믿음과 수용(acceptance)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믿음과 수용은 여러 가지 유사한 속성들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층위에서 반드시 구분될 필요가 있는 서로 다른 두 명제태도이다. (이주한 2017a, p. 203)

우선 코언(Cohen 1989)과 올스톤(Alston 1996)에 따르면 p

---

4) 자신의 믿음 p에 대하여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반대증거가 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이유를 묻고 답하는 사회실천에 참여하는 이성적 존재로 간주되기 위해서 증거에 부합하게 더 이상 p를 믿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재훈련을 받거나 또는 자신을 스스로 조건화해야 한다. 이 논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우리가 전진긍정추론(modus ponens)과 같은 추론규칙들을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이런 추론규칙들에 따라 믿음을 형성하도록 훈련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자신의 믿음에 대해 왜 인식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선 필자의 『현대 인식론』 제2장을 참조하기 바람.

를 수용하는 것은  $p$ 를 믿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S$ 가  $p$ 를 믿지 않지만  $p$ 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믿음과 수용의 구분에 대해 코언과 올스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올스틴에 따르면 믿음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성향적 상태(a complex dispositional state)이다.

1.  $S$ 가  $p$ 를 믿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S$ 에게  $p$ 인지에 대해 물으면,  $S$ 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성향을 가질 것이다.
  2.  $S$ 가  $p$ 를 믿으면, 그리고  $S$ 가  $p$ 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고려하면, 확신의 정도는 다양하겠지만  $S$ 는  $p$ 가 성립한다고 느끼는 성향을 가질 것이다.
  3.  $S$ 가  $p$ 를 믿으면, 그가  $p$ 로부터 함축된다고 여기는 명제들을 믿는 성향을 가질 것이다.
  4.  $S$ 가  $p$ 를 믿으면, 적절한 상황에서  $p$ 를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의 전제로서 사용하는 성향을 가질 것이다.
  5.  $S$ 가  $p$ 를 믿으면, 그리고  $S$ 가  $p$ 가 거짓임을 알게 되면, 그는 놀라는 성향을 가질 것이다.
  6.  $S$ 가  $p$ 를 믿으면, 그는 그가 추구하는 것들, 혐오하는 것들, 그리고 그의 다른 믿음들의 관점 하에서,  $p$ 가 참이라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성향을 가질 것이다.
- (Alston 1996, p. 4)

반면 코언은 위의 조건들 중 오직 조건 2만을 ‘믿는다’의 의미를 구현하는 조건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는 믿음과 수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S$ 가  $p$ 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p$ 를 전제로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가  $p$ 를 참인 것으로 느끼는 성향(a disposition to feel it true that  $p$ )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p$ 를 믿지 않지만  $p$ 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올스틴의 경우에도  $p$ 를 믿지 않지만  $p$ 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코언과 다르다. 올스틴은 믿음, 수용, 그리고 가

정 또는 작업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p$ 를 믿는다는 것은  $p$ 가 참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p$ 가 참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때때로  $p$ 를 참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가정 또는 작업가설을 참인 것으로 수용함이 없이 제한된 목표 하에서 그 가정 또는 작업가설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울스턴에 의하면  $p$ 는 수용한다는 것은  $p$ 를 가정 또는 작업가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p$ 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p$ 가 참임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코언의 견해와 달리  $p$ 를 수용한다는 것은  $p$ 를 믿지 않음을 함축한다. 또한 울스턴은 오직 조건 2만을 ‘믿는다’의 의미를 구현하는 조건으로 간주하는 코언의 견해를 부정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에 따르면 믿음은 일반적으로 1부터 6까지의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성향적 상태이다.

그렇다면  $p$ 를 믿으면서 또한  $p$ 를 수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코언의 답은 ‘그렇다’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조건 2만을 ‘믿는다’의 의미를 구현하는 조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p$ 를 믿는지와 독립적으로  $p$ 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울스턴에 의하면  $p$ 를 수용할지 말지는  $p$ 가 참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p$ 를 수용한다는 것은  $p$ 를 믿지 않음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  $p$ 를 믿으면서 또한  $p$ 를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요컨대 코언과 울스턴에게 ‘믿음’과 ‘수용’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그런데 믿음과 수용을 구분하는 이주한 박사의 견해 속에 위와 같은 차이점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르면 믿음은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인 반면 수용은 수의적인 심적 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심적 태도이다. 다만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한다.

코언이 제시하는 수용 개념에 따르면,  $p$ 를 지지하는 인식적 이유가 충분한 경우에도  $p$ 에 대한 수용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울스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용이란 행위를 잉여적인 행위로 만들 여지가 있으며(“ $p$ 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p$ 를 또 수용할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서 필자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울스톤이 제안한 수용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주한 2017a, p. 205, 주 6)

그런데  $p$ 에 대한 믿음이  $p$ 에 대한 수용을 잉여적으로 만든다는 말은 전자가 후자를 함축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코언의 견해에 의하면 전자는 후자를 함축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언은 오직 조건 2만을 ‘믿는다’의 의미를 구현하는 조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p$ 를 믿는 것과  $p$ 를 수용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다. 바로 이 때문에  $p$ 를 믿으면서 동시에  $p$ 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울스톤의 경우에도  $p$ 에 대한 믿음이  $p$ 에 대한 수용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조건 2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믿음과 수용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p$ 에 대한 수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 2가 성립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p$ 를 믿는 경우에는  $p$ 에 대한 수용이 정의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코언과 울스톤의 견해 차이는 오직 조건 2만을 ‘믿는다’의 의미를 구현하는 조건으로 간주하는지, 또는 아닌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이지,  $p$ 에 대한 믿음이  $p$ 에 대한 수용을 잉여적으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코언과 울스톤 사이의 이와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이주한 박사의 견해 속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믿음’과 ‘수용’의 구분과 관련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점이 있다. 과연 위에서 제시한 코언, 울스톤, 그리고 이주한

박사의 논의는 ‘믿음’ 과 구분되는 ‘수용’ 이라는 심적 태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오직 후자의 경우에만 우리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p$ 를 믿지만  $p$ 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코언 (Cohen 1989, p. 369)은 다음의 예를 제시한다.

- (4) S는 정부의 극비 사실  $p$ 를 알게 되었지만, 이 극비 사실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드러내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다. 그 결과로써 그는 그의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p$ 를 전제로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위 경우에 S는  $p$ 를 참인 것으로 느끼는 성향을 가진다. 즉 조건 2가 성립한다. 따라서 코언의 견해에 의하면 S는  $p$ 를 믿는다. 그러나 S는 그의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p$ 를 전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p$ 를 수용하지 않는다. 올스틴의 견해에 따르면, S는  $p$ 가 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위 경우는  $p$ 를 수용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1부터 6까지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성향적 상태이지만, (4)의 경우 조건 4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4)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그럼에도 S가  $p$ 를 믿지만  $p$ 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주한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4)는 어떤 경우인가? 우선 이 경우에 S는  $p$ 를 불수의적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S는  $p$ 를 인식적으로 수용하는가? 이 경우 S는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  $p$ 를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면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sim p$ 를 실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S는 그의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p를 전제로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sim p$ 를 전제로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S가 p를 믿지만 p를 (인식적으로든, 실용적으로든)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4)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S는 p를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p를 승인한다. 그럼에도 그가 한 비밀유지서약 때문에 그의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p를 전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겉보기에 S는 p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적 관점에서 p에 대한 믿음을 S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 그렇지만 S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의 서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는 실제로 p에 대해 심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추가적 노력 없이도 그의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p를 전제로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4)의 사례는, S가 비록 p를 실제로는 믿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믿지 않는 척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S가 비록 p에 대한 믿음이 가지는 성향을 현재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이를 막는 요소가 사라지면 곧바로 p를 믿는 사람의 성향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는 척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믿음’ 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수용’ 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4)와 같은 사례는 믿음과 수용을 서로 구분되는 심적 태도로서 구분해야 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않는다.

이제 p를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p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코언(Cohen 1989, p. 369)은 다음의 두 예들을 제시한다.

(5) S는 p가 거짓이라는 직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까



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알려진 증거들에 비추어,  $p$ 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화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p$ 를 승인한다.

- (6) S의 가장 절친한 오랜 친구가 최근 일어난 범죄의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 증거에 비추어 그 친구가 유죄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S는 마음 속 깊이 그 친구가 무죄임을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오랜 우정 때문에 그 친구가 무죄라는 명제를 승인한다.

먼저 (5)의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언은 오직 조건 2만을 ‘믿는다’의 의미를 구현하는 조건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5)의 경우를 S가 조건 2를 제외하고 조건 1부터 6까지의 조건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성향적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록 S가  $p$ 가 거짓이라는 직감을 갖고 있고, 따라서  $p$ 가 참임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증거에 비추어,  $p$ 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화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p$ 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삼자적 관점에서  $p$ 에 대한 믿음을 S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S가  $p$ 가 거짓이라는 직감을 갖고 있다는 제삼자가 알 수 없는 사실을 제외하고  $p$ 를 믿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심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비록 S는  $p$ 에 대한 반대증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p$ 가 거짓이라는 직감을 전혀 갖고 있는 많은 사람에 비해  $p$ 에 대한 승인을 쉽게 철회할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p$ 에 대한 승인을 지속하고, 이에 따라  $p$ 를 그의 모든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p$ 를

전제로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제삼자적 관점에서 S에게 p에 대한 믿음을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명제를 강한 확신이 없이 믿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례는 ‘믿음’ 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수용’ 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도입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이제 (5)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을 살펴보자. S는 p가 거짓이라는 직감 때문에 마음 속 깊이에서는 p에 대해 심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경우엔 p를 승인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오직 자신만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p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주저한다. 이런 경우는 S가 진정으로 p를 수용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단지 p를 수용하는 척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수용하는 척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믿음’ 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심적 태도로서 ‘수용’ 이라는 범주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6)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경우에서 S는 ‘내 친구는 무죄이다’ 가 표현하는 명제 p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p에 대해 심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외적으로는 우정 때문에 p를 승인하는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 경우 S는 p에 대해 진정으로 심적으로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p를 그의 모든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전제로 사용하기 어렵다. 만약 그가 그의 모든 가능한 이론적 및 실천적 추론에서 p를 전제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제삼자적 관점에서 그에게 p에 대한 믿음을 귀속시킬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그가 p에 대해 심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에 그가 p에 대해 심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단지 p를 수용하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p를 수용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성향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위에서 논의한 예들은 믿음과 수용을 서로 독립적인 심적 태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 다시 말해 믿음과 수용은 현대인식론에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분이다.

#### 4.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믿음과 수용을 구분하는 코언, 올스틴과 같은 철학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주한 박사는 이러한 구분을 넘어서서 수용을 두 가지 유형, 즉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으로 구분한다. 이 절에서 필자는 수용을 이주한 박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주장할 것이다.

우선 이주한 박사가 왜 실용적 수용의 개념을 도입하는지 살펴보자. 믿음은 많은 경우 적어도 직접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주한 박사에 따르면 수의적으로 제어되는 ‘믿음’의 사례들이 있다. 다음의 두 예들을 살펴보자.

- (7) 산에서 길을 잃은 나는 그 낡은 안내 표지판이 맞게 쓰여진 것인지 의심스러웠으나 일단 믿고 따라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 (8) 누구 보아도 그녀의 남자 친구가 그녀를 떠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도대체 믿으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그녀를 위로하여 하였으나 그녀는 그 위로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주한 2017b, p. 116)

먼저 (7)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예의 주체를 S라고 하자. 이주한 박사에 따르면 이 예에서 S는 ‘안내 표지판은 맞게 쓰여졌다’라는 내용을 실용적 목적 하에서 수용한다.

일상적인 표현에 따르면 표지판 내용을 ‘믿기로 마음먹은’ 것  
이지만, 다의성을 제거한 채 서술하면 실용적 목적에서 해당 내  
용을 ‘수용하기로(즉,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것이 된다.  
(이주한 2017b, p. 118)

그러나 위 예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위 예에서 S는 산에서 길  
을 잃었고, 따라서 길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무작정 방향을 정하  
는 것보다는, 비록 낡은 표지판일망정 표지판이 지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길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무엇을 믿을지(what to believe)를 결정하는  
이론추론의 사례라기보다는, 무엇을 할지(what to do)를 결정하  
는 실천추론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사람이 S  
에게 ‘그 표지판의 내용이 참임을 수용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그렇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 ‘그 표지판의 내용이 참임을  
수용해서가 아니라, 무작정 방향을 정하는 경우보다는 표지판에 따  
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좀 더 더 나을 듯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  
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7)를 표지판의 내용을 참으로 수  
용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제 (8)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주한 박사는 이 예를 다음과 같  
이 해석한다.

해당 상황에서 그녀에게는 남자 친구가 떠나갔다는 것이 명백할  
만큼의 증거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그녀는 남자 친구가 떠났다는  
믿음을 불수의적으로 형성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믿음  
내용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 또한 갖고 있다고 맥락을 통해 이  
해될 수 있다. 가령,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 감정적 요  
인이 그러한 사실을 거부하게 하는 비인식적 이유를 구성할 것이  
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증거가 가리키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  
용할 이유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함께 주어져 있으며, 두 이유  
가 상호 경쟁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후자의 이유에 따라 거부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주한 2017b, p. 119)

위 예의 주체를 T라고 부르자. 이주한 박사는 T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T의 남자친구가 T를 배신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따라서 T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믿음을 불수의적으로 형성한다. 그런데 T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음을 수용해야 하는 인식적 이유와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비인식적 이유가 경쟁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T는 후자를 택함으로써 남자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수용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남자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명제를 q라고 하고 q가 참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E라고 하자. 이주한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이 경우 T는 E에 의해 q를 불수의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군가 T에게 ‘q가 참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한에서, T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렇다’라고 답해야 한다. 그런데 T는 비인식적 이유에서  $\sim q$ 를 수용한다. 따라서 T에게 ‘q가 참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한에서, 그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야 한다. 그러나 q에 대해 긍정을 하면서 동시에 부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T가 비인식적 이유에서  $\sim q$ 를 수용하는 경우는 q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듯 보인다. 그러나 이 해석은 E에 의해 S가 q를 불수의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과 충돌한다.

위 문제를 피하기 위해 T가  $\sim q$ 를 수의적으로 수용하는 한, 반대증거에도 불구하고  $\sim q$ 라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8)은 자기기만의 사례로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기만은 자신이 고수하고자 하는 믿음에 어긋나는 반대증거들을 성

공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한에서 유지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예컨대 T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T의 남자친구가 T를 배신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T에게 제시하는 상황에서 T는 실용적 이유를 근거로  $\sim q$ 를 계속 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주한 박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T가  $\sim q$ 를 수의적으로 수용함으로써  $\sim q$ 라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녀는 굳이  $\sim q$ 가 참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아도 그녀의 믿음을 고수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주한 박사의 해석은 자기기만의 현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8)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자기기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선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합리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기만자는 통상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믿음상태에 있다.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비합리적 믿음상태를 자기무지(self-ignorance)라고 부르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무지 자체는 자기기만이 아니다. 태생적으로 아둔하거나 또는 부주의에 의해 자기무지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무지에 덧붙여 추가적 요소  $\alpha$ 가 필요하다.

$$\text{자기무지} + \alpha = \text{자기기만}$$

필자는 여기서  $\alpha$ 에 해당하는 것은, 다소 단순화시켜 표현하면 일종의 ‘자기 불구화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기만자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욕망, 희망, 두려움 등에 이끌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시켜 주거나 또는 그의 심적 불안을 경감

시켜 주는 믿음을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기만자는 자신이 가진 욕망, 희망, 두려움 등에 이끌려 자기 자신의 진정한 상황을 옳게 판단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이제 위 논점을 염두에 두고 (8)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성이다. 따라서  $\sim q$ 라는 기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고수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에 때때로 접하게 되고 그 결과 q가 참일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된다. 그래서 T는 이와 같은 심리적 불안을 경감하기 위해 그 믿음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한다. 또한 누군가 남자 친구가 그녀를 배신했냐고 묻는다면 그에 대해 완강히 거부한다. 이 경우 T가 q가 참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는 자기기만적 행동을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만약 T가 q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q를 옹호해주는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가 q가 참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는 이유는,  $\sim q$ 라는 기존 믿음을 고수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이 혹시라도 참이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때때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 믿음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기만은 자신이 고수하고자 하는 믿음에 어긋나는 반대증거들을 성공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한에서 유지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기기만이 이처럼 매우 불안

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자기불구화 전략이 반드시 의도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불안을 경감하고자 하는 심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 때문에 명시적 의도의 매개 없이 우리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에 좀 더 주목하고, 반대증거에 덜 주목할 수 있다. 자기기만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선 Lee(2002)를 참조하기 바람.

정한 상태인 이유는 자기기만의 주체가  $\sim q$ 를 애써 믿는 상태에서  $q$ 가 참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에 직면할 때  $\sim q$ 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8)의 경우를 T가 반대증거에도 불구하고 비인식적 이유에서 남자친구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의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기존 믿음을 반대증거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방법으로 고수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을 구분하는 이주한 박사의 방식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이다. 앞 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주한 박사는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우선 첫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다.  $p$ 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S는  $p$ 에 대한 믿음을 불수의적으로 형성한다. 그런데  $p$ 를 거부할 실용적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p$ 에 대한 믿음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p$ 에 대한 수용이 필요 없다.

이와 달리, 만일 믿음의 증거는 가지고 있으나 그 믿는 바를 거부할 별도의 비인식적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는 모든 것은 증거에 따라 해당하는 믿음이 형성되는 사건뿐이며, 그 외에 그에 관한 별도의 심적 태도, 즉 인식적 수용 행위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인식적 수용이라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특정 명제가 참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가 나타날 때, 그러한 비인식적 이유에 대항하여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주한 2017a, p. 214)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다.  $p$ 에 대한 증거가 없지만,  $p$ 를 수용할 비인식적(또는 실용적) 이유가 있다. 그래서  $p$ 를 수용하는 경우가 실용적 수용이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위해 어떤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심적 행위가 실용적 수용이다. (이주한 2017a, p. 219)

끝으로 세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다. p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S는 p에 대한 믿음을 불수의적으로 형성한다. 그런데 p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S는 그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면서, 인식적 이유에서 p를 수용한다. 이런 경우가 인식적 수용의 경우이다.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그것이 그 믿음 안에 표상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간주하는 심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주한 2017a, p. 213)

만일 나에게 명제 p를 지지하는 증거가 주어진다면, 나는 믿음 p를 불수의적으로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p를 지지하는 증거와 더불어 나에게 p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 또한 주어진다면, 나는 형성된 믿음 p를 ... 인식적으로 수용할지(즉,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선택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명제 p의 인식적 수용은 p를 받아들일 인식적 이유와 p를 거부할 비인식적 이유가 상호 경쟁하는 맥락에서 전자의 이유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기 때문에, 인식적 수용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상호 경쟁하는 맥락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니고, 또한 이미 믿고 있는 명제에 대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 이차적인 명제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주한 2017b, p. 119)

따라서 이주한 박사에 의하면 p를 실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p가 참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음에도 p를 실용적 이유에서 수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p를 인식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믿음  $p$ 를 거부할 실용적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면서  $p$ 를 인식적 이유에서 수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려운 여러 이유들이 있다.

첫째,  $p$ 를 옹호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p$ 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우선 제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믿음  $p$ 의 원인  $C$ 가  $p$ 의 증거이기 위해서는  $C$ 가  $p$ 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믿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C$ 는 믿음  $p$ 가 정당화되는지와 무관한, 단지 이것의 인과적 원인에 불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모든 원인이 그 어떤 예외도 없이 항상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좋은 이유가 없다.

둘째, 자기기만의 사례를 실용적 수용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앞서 논의했던  $T$ 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T$ 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또한 반대증거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증거를 외면함으로써 그 믿음을 고수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자기기만의 사례를 반대증거에도 불구하고 비인식적 이유에서 ‘남자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를 수의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컨대  $T$ 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T$ 의 남자친구가  $T$ 를 배신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T$ 에게 제시하는 상황에서  $T$ 는 비인식적 이유를 근거로 ‘남자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를 참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셋째,  $p$ 가 참임을 옹호해주는 증거가 있고, 또한  $p$ 를 거부할 실용적 이유가 없음에도,  $p$ 를 인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다음 상황을 고려해 보자.  $p$ 가 참임을 옹호해주는 증거가 있다. 그렇지만  $S$ 는 웬지  $p$ 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반대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p$ 를 믿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그렇지만 한 동안 계속 생각해 보아도  $p$ 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서 결국  $p$ 가 참임을 인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넷째,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주한 박사에게 따르면 인식적 수용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고, 인식적 이유에서 수용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이다. 그러나 인식적 수용이 오직 자신이 이미 믿고 있던 명제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T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T는 ‘남자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 증거들을 애써 외면한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T는 자신의 기존 믿음을 고수할 비인식적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T는 어느 시점에 자기기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주어진 증거에 따라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기존 믿음을 포기하고 ‘남자친구는 나를 배신했다’ 라는 명제를 인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끝으로, 의무론적인 인식규범이 적용되는 심적 태도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수의적인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이라는 이주한 박사의 주장도 매우 반직관적이다. 인식규범은  $p$ 를 옹호하는 적절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p$ 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규범은 오직 증거와 실용적 이유가 서로 경쟁하거나, 또는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컨대 다음 상황을 고려해보자. 어떤 사람 S가 어떤 거짓된 믿음  $p$ 를 불수의적으로 형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우리는 그 믿음이 거짓임을 지적함으로써 S에게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제3절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들에 대해 인식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식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수의적으로 형성되는 믿음들도 예외가 아니다. S가 목초지에 있는 어떤 털복숭이 동물을 보고 ‘목초지에 양 한 마리가 있다’는 믿음을 불수의적으로 형성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S가 본 것은 양이 아니라, 양과 생김새가 매우 흡사한 털복숭이 개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S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믿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본 털복숭이 동물에 좀 더 다가가서 그것이 양이 아니라 개임이 확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론적인 인식규범이 오직 수의적인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에만 적용된다는 이주한 박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3. 나오는 말

지금껏 필자가 주장한 바가 기본적으로 옳다면, 이주한 박사의 논제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첫째, 믿음의 성향과 실제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승인조건이 필요하다. S가 p를 실제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p에 대해 심적으로 승인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이와 같은 심적 승인의 요소 때문에 믿음은 단지 심적 성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인식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론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바로서의 ‘믿음’은 단지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인식규범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둘째, 이주한 박사가 믿음과 수용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자는 직접적 수의적 제어 하에 있지 않는 심적 성향인데 반해 후자는 직접적 수의적 제어 하에 있는 심적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수의적으로 형성된 믿음에 대해서도 인식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인식적 책임을 가지는 이유는 불수의적으로 형성된 믿음들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통해 그것들을 의심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주한 박사가 말하는 ‘믿음’ 과 ‘수용’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믿음과 수용을 구분하는 코언과 올스틴의 중요한 견해 차이가 이주한 박사의 견해 속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넷째, 어떤 명제를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상황이 오직 증거와 실용적 이유가 서로 경쟁하거나, 또는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주한 박사가 제시하는 실용적 수용과 인식적 수용 사이의 구분도 부적절하다.

이주한 박사의 논의는 현대 인식론의 여러 핵심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의 짧은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독립적인 논문에서 다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끝으로 필자의 논문이 이주한 박사가 제기한 흥미로운 철학적 논점들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이병덕 (2002), “믿음관념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제56집, pp. 337-357.
- 이병덕 (2013), 『현대 인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주한 (2015), “믿음의 불수의성의 필연성”, 『철학』, 제124집, pp. 141-164.
- 이주한 (2017a), “‘믿음’과 인식적 수용”, 『논리연구』, 제20집 제2호, pp. 197-239.
- 이주한 (2017b), “인식적 수용과 공시적인 인식적 의무”, 『철학』 제132집, pp. 111-137.
- Alston, William (1996), "Belief, Acceptance, and Religious Faith", in Jeff Jordan and Daniel Howard-Snyder (eds.), *Faith, Freedom, and Rationalit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p. 3-27.
- Bratman, Michael (1992), "Practical Reasoning and Acceptance in a Context", *Mind*, 101 (401), pp. 1-15.
- Cohen, L. Jonathan (1989), "Belief and Acceptance", *Mind*, 93 (391), pp. 367-389.
- Lee, Byeong D. (2002), "Shoemaker on Second-Order Belief and Self-Deception", *Dialogue*, 41(2), pp. 279-289.
- Moser, Paul (1989), *Knowledge and Evid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bydlee@skku.edu

## Belief, Pragmatic Acceptance, and Epistemic Acceptance

Byeongdeok Lee

---

In his recent three papers, Jooan Lee defends the following three theses. First, an ordinary term 'believes' is polysemous in that it can refer to three different types of mental attitudes; that is, it can refer to a belief as an involuntary mental disposition, or a pragmatic acceptance as a voluntary mental action, or an epistemic acceptance as a different voluntary mental action. Second, a person's pragmatic acceptance of a proposition is his voluntary mental action which takes it to be true for pragmatic reason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adequate epistemic evidence for the proposition, whereas a person's epistemic acceptance of a proposition is his voluntary mental action which takes it to be true for epistemic reason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a pragmatic reason to the contrary. Third, mental attitudes to which epistemic norms apply are epistemic acceptances as voluntary mental actions, rather than beliefs as involuntary mental dispositions. If these theses are correct, then they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epistemology. In this paper, however, I argue that Jooan Lee is not successful in defending these theses.

Key Words: Belief, Pragmatic acceptance, Epistemic acceptance,  
Epistemic duty, Jooan Lee.